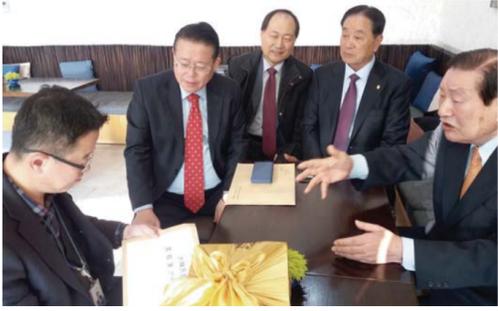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시키자!!

청와대에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제출



권해욱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강희중 행정관(왼쪽 첫 번째)에게 행주대첩 기념행사의 기간의 경과와 100만 안동권문의 숙원사업인 권율도원수의 행주대첩에 대한 역사 재평가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권기식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강희중 행정관(왼쪽에서 네 번째)에게 행주대첩 기념행사 국가행사 격상의 당위성과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행주대첩제 국가 행사 격상 건의서 직접 전달



권해욱 회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행주대첩 기념행사의 위상과 기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역사 재평가를 통해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는데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권해욱 회장 등 참석자들은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권율도원수에 대한 정당한 역사 재평가를 통해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권해욱 회장, 권기식 부회장, 권영익 수석부회장(오른쪽부터).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경성 정 국회의원, 권혁중 이사(오른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집전 전에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참석자들이 권율장군과 행주대첩제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면담이 끝난 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해욱 회장 기념촬영



면담이 끝난 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기식 부회장 기념 촬영, 권기식 부회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권노갑 고문과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건의서 제출 일정 조율



권해욱 회장, 권노갑 고문, 권경성 전 국회의원, 권기식 부회장(왼쪽부터).



권해욱 회장, 권노갑 고문, 권기식 부회장, 권경성 전 국회의원(오른쪽부터)

권해욱 대총회 회장은 1월 9일 오전 12시 권경성 전 국회의원과 권기식 부회장(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권혁완 편집국장과 함께 권노갑 고문(전 국회의원)을 조선호텔에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제출일자를 협의했다. 권해욱 회장은 권노갑 고문에게 그간의 추진 경위와 2018년 1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1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1990년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이영평 문화부장관에

게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시 "바다에는 이순신장군, 육지에는 권율장군"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임진왜란을 극복하여 이순신장군과 함께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되었음에도 이순신장군은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권율장군은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나 유림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된 역사적 공과를 비교해 볼 때 현재 병행하고 있는 행사의 격차는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여 이 어령 장관으로부터 정부에서 주관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편집국장 권혁완

그 후 1991년 3월 14일에는 이어령장관이 직접 기념행사를 주관하였고 또 국비까지 지원했던 역사적 사실도 설명했다. 권기식 부회장은 안동권문이 더 발전하기 위해 현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를 접수하는 문제는 안동권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권경성 전 국회의원 역시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은 안동권문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라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노갑 고문은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권율도원수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대총회와 100만 족친들의 그간의 노고와 관심에 대해 크게 격려했다. 이어서 권노갑 고문은 권해욱 회장과 함께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건의서를 접수하는 날짜와 시간을 최종 조율했다. 편집국장 권혁완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최종 검토 회의 개최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 1월 9일 권노갑 고문과 조율이 완료됨에 따라 권해욱 회장은 다음날인 1월 10일 11시에 대총회 사무실에서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오신 편집위원장, 권기식 부회장(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권혁완 편집국장과 함께 편집국장이 작성한 건의서를 최종 점검했다. 권해욱 회장은 어제 권노갑 고문을 만나 건의서 제출 일정을 국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는 오후 2시에 제출하기로 최종 조율했다. 권노갑 고문이 청와대와 국회 접수문제를 직접 연결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 덕분에 건의서 접수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되었다. 오늘은 내일 제출할 건의서를 최종적으로 잘 검토하자고 말했다. 권영익 수석부회장은 이영평 문화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1991년과 1992년 행주대첩제 기념행사에 국비지원 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권오신 편집위원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해욱 회장,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기식 부회장(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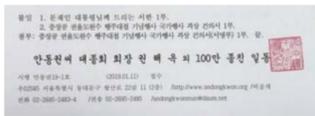
동을 펼친 적이 없는데 권해욱 회장이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100만 족친들에게 서명 받은 결과물을 내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니 이는 안동권문 역사에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완 편집국장은 참석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문서내용과 첨부문서 등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권해욱 회장과 권혁완 편집국장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문서의 문구 하나 하나까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했다. 권태훈 총무국장과 송하임 과장은 1만여 명의 서명부를 9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날 오후 16시 경에야야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편집국장 권혁완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제출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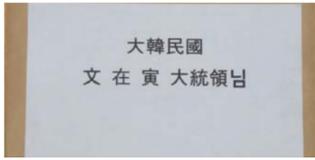
2019년 1월 종보를 2018년 12월 31일 발송하였다. 2019년 1월 2일 출근하자마자 권해욱 회장은 권혁완 편집국장에게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준비를 지시했다. 권혁완 편집국장은 곧바로 건의서 문건 준비에 돌입했다. 그 동안 틀림이 준비한 자료가 있기는 했으나 보다 더 충실하게 건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전쟁기념관, 단국대죽전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찾았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권율도원수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었다.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었다. 대총회에 권율장군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다. 오히려 권영렬 고문이나 보내 준 『충장공 도원수 권율장군 실기』와 권영익 수석부회장이 직접 가져다 준 권율장군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충장공 권율』이 비교적 가장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율도원수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취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전화로 보냈다고 있는 자료 등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풀리적인 행주산성을 관리하고 있어서 아무 자료도 없다고 대답했다. 오직 받아볼 수 있는 자료라고는 고작 팜플렛 2장뿐이었다. 이치대첩과 관련된 금산군 역시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 하지만 2013년 12월에 금산군에서 이치

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승격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금산이치대첩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음은 독산성이 위치한 오산시에 전화를 걸어 독산성과 세마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 오산시 해남 공무원은 오산시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내 주었다. 그 덕분에 독산성과 세마대의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까지 2018년 7월에 추가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문화재청 고시 제2018-88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의서를 제출할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편집국장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집에서 계속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전자도서관에 접속하여 국회속기록 등을 검색했다. 그러던 중 고양시 덕양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태원 전 국회의원이 2009년 12월 11일 제285회 국회 임시회 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에게 행주산성을 호국역사공원화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속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김태원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그 당시 김태원 국회의원이 행주산성을 호국역사공원화로 추진하려 했으나 국회의원 낙선과 정권 교체 등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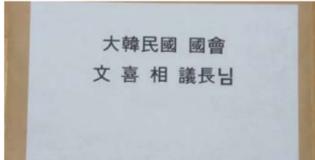
이처럼 권율도원수에 대한 관련 자료의 한계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문서 작



안동권문 대총회 회장 권해욱 의 100만 종친일동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제출한 표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표지

소는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를 비롯해 무려 7군데나 확인되었다.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문제는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권율도원수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가 아니겠

로 하는 총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1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 1부, 대표 서명부 1부(1권-9권)를 작성하여 건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한 문서 역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한 문서와 동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수신자로 하는 총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1부, 문희상 국회의장께 드리는 서한 1부, 대표 서명부 1부(1권-9권)를 작성하여 직접 전달했다. 특히 대총회에서 평소에 생산하는 문서의 명의로는 "안동권문 대총회 회장 권해욱"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안동권문 대총회 회장 권해욱 의 100만 종친 일동"이라는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러니까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고려할지라도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100만 안동권문의 종친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올렸다는 점을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건의서 제출이 완료되자 곧바로 권양숙 여사에게 행주대첩제 기념행사 국가 격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건의서 제출로 반드시 국가행사로 격상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작성하여 보냈다. 총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국가 격상 건의 서명운동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했다. 3월 14일 행주대첩 기념행사부터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을 받았다. 춘추항제를 병행하는 능동재사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5월 전국 청장년체육대

회에서, 장대비로 흠뻑 젖은 이치대첩 기념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전국 모든 성씨들이 참여하는 대전 효부리문화축제 비오는 현장에서 권기식 사시는 편집국장공 권순용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공과 함께 직접 제작해 온 어깨띠를 두르고 대환약을 했다. 대전종친회(권용기 회장)에서는 부스에서 서명을 받았다. 또 전국 각 지역종친회장단, 청장년회장단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족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이번이 안동권문의 명망가라고 할 수 있는 권이현 전 보사부장공, 권영해 전 국방부장공, 권재진 전 법무부장공, 권정달 전 총재, 권복경 전 치안본부장, 권노갑 전 국회의원,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권경성 전 국회의원, 권영길 전 국회의원, 권순일 대법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태호 변호사, 권영성 변호사, 권오덕 변호사 등 기라성 같은 족친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처럼 거족적인 일을 단행할 수 있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마지막까지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연락을 주신하고 제출할 일정까지 조율해 주었다. 최성 고양시장, 설훈, 권철승, 김광림, 조정식 국회의원 등도 동참했다. 이는 권건중 사무총장의 공이 컸다. 이번 일은 이렇게 안동권문의 수많은 족친들의 정성과 공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안동권문의 저력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안동권문 100만 종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편집국장 권혁완